## 5. 학교 입지에 따른 미세먼지 특성

학교 주변의 교통은 학교 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미국 환경보호청(U.S.EPA) 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일반적으로 도로 근처 500ft(약 150m) 이내에서 높게 나타나며 2,000ft(약 600m)까지 떨어져야 배경농도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교실이 있는 학교 건물은 고속 및 간선도로 등 오염물질 발생원에서 가능한 멀리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<sup>18</sup>.



<그림 34> 학교 주변 도로영향을 고려한 교사 배치

자료: U.S.EPA(2015). Best Practices for Reducing Near-Road Pollution Exposure at Schools

이와 관련하여, 미국 환경보호청(U.S.EPA)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는 교통 관련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, 교통 관련 시설을 고려한 학교부지 선정 지침을 마련 및 제시하였습니다. 캘리포니아주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부지는 주요 도로의 500ft(약 150m) 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, 대기오염 노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.

또한, 유럽연합(EU)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변에 벽 등을 설치하여 학교 건물 내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, 학교를 신규로 설립할 때는 실외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줄이기 위해 'Pollution-free zone'을 설정하거나 학교 건물 근처의 도로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로와 약 1km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'<sup>9)</sup>.

## [표 20] 교통관련 대기오염 노출 저감을 위한 학교부지에 관한 지침(미국 기준)

기관	지침	주요 결과
U.S. EPA	학교 시설 기준 (2011)	<ul> <li>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부지 선정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권고</li> <li>지역사회 입지(지역 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포함)</li> <li>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</li> <li>학생 등교 시 대기오염물질 노출</li> <li>학교 내의 거리(걷기나 자전거 타기의 접근성 포함)</li> </ul>
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	공기질과 토지 이용 핸드북 (2005)	■ 신설 학교는 주요 도로에서 500ft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을 권고 (하루에 5만 대 이상의 차량)
캘리포니아 교육청	학교부지 선정 및 승인 지침서 (2000)	<ul> <li>신설 학교는 휘발유, 디젤, 프로판, 염소, 산소, 살충제 또는 기타 가연성 또는 유독가스를 운반하는 도로로부터 1,500ft, 폭발물을 운반하는 도로로부터는 2,500ft 떨어진 곳에 선정하는 것을 권고</li> </ul>
사우스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	학교부지 선정시 대기 환경 문제: 학교부지 지침서 (2005, updated 2007)	■ 학교와 주요 도로 사이에 500~10,000ft의 완충 지대를 갖는 것을 권장
LA 학교 통합 지구	학교부지 이격 거리 기준 (2008)	■ 신설 학교는 고속도로나 주요 교통로(하루에 10만대 이상)에서 500ft 이내에는 짓지 않을 것을 권고

\* 500ft ≒ 150m

자료: U.S.EPA(2015). Best Practices for Reducing Near-Road Pollution Exposure at Schools

국내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, 산업단지의 주변 지역이나 공단에 연결된 도로의 인근 지점에서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블랙카본<sup>20)</sup>의 농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는데, 원인은 산업단지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, 공단과 연결된 도로를 통행하는 디젤 차량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<sup>21)</sup>.

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이슈는 사계절 변화로 인해 외부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높아지는 상황이 기본적인 문제이므로, 학교 미세먼지 관리 또한 학교가 위치한 외기와 교실 내부 공기를 유동적으로 같이 고려해야만 합니다.